

이소영의 '우리지역 우리식물'



숲에서 만나는 고양이의 눈 '영광의 팽이눈'

식물 세밀화를 그리기 전에 지켜야 하는 몇 가지 규칙이 있다. 나무의 경우 3년지까지 그려야 하고, 식물의 전체 모습에는 꽃이나 열매 같은 생식기관이 포함되어야 한다.

고민할 것이다. 그리고 왜 이들이 좋으나 못나다면 이로부터 좋아할 수밖에 없다고 답할 것이다.

우리는 흔히 꽃의 구조에서 가장 면적이 넓은 꽃잎이나 꽃받침, 화피가 아름다울 때 비로소 꽃이 아름답다 느낀다.

이쯤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꽃 피기도 작고 화려하지 않고, 향기도 나지 않는 이 식물은 어떻게 매개동물을 불러들여 수분을 하는 걸까?

우리나라에는 가지팽이는, 잎이 마주나는 누른팽이는, 줄기에 흰 털이 있는 흰털팽이는 그리고 꽃의 크기가 아기처럼 작은 애기팽이는 애기팽이가 뒤로 쫓겨하는 산팽이는, 포엽이 셋처럼 붙는 천마팽이는 등이 분포한다.

수 있지만 잎이 나는 모양, 털의 유무, 수술의 개수 등이 모두 다르다.

나는 팽이눈속 중 대표종인 팽이눈을 만난 적이 없다. 이들은 1913년 식물학자 나카이카데노신 의에 한라산에 분포한다고 보고된 후 우리나라에서 실제 자생지를 찾을 수 없었다.

팽이눈속 식물의 특별한 점은 이들의 작은 크기로부터 비롯되었다. 식물의 작은 크기는 매개 동물을 유혹하기도 어렵고 동물에게 쉽게 밟힐 수도 있는 불리한 조건이지만, 팽이눈은 잎의 색을 꽃 색으로 변화시켜 단점을 스스로 극복했다.

이제 팽이눈속 식물들의 꽃이 지면 열매가 맺을 것이고. 오목한 접시 형태의 열매 안에는 작은 씨앗들이 고이 담겨 있을 것이고, 비가 내리거나 개울의 물이 튀면 물방울은 열매 접시에 떨어져 씨앗은 멀리 튕겨 나갈 것이다.

<식물 세밀화가>

의료칼럼



정현호 보리안과병원 원장

눈에 맞는 주사, 두려워하지 마세요

으로는 당뇨병성 황반부종, 망막혈관 폐쇄성 황반부종 및 포도막염이 있고 특히 녹내장, 당뇨망막병증과 함께 3대 실명 질환으로 불리는 황반변성 치료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황반변성은 신생 혈관이 없는 건성 황반변성과 신생 혈관을 동반하는 습성 황반변성으로 구별할 수 있다. 건성 황반변성은 아직 시력이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황반변성은 아주 복잡한 질환으로, 이중 나이가 가장 확실한 위험으로 알려져 노년층 성인의 눈 건강을 위협하는 주범이다.

주사를 맞은 후 관리도 중요하다. 관리가 소홀할 경우 안구 내 염증 등의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 손을 철저하게 잘 씻고, 주사 후 3-7일량은 세수를 하거나 눈을

비비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는 게 도움이 되며, 처방받은 항생제 안약을 의사의 지시에 따라 점안해야 한다.

주사 후 안대 착용이 꼭 필요하진 않지만 의도치 않게 손으로 눈을 만질 위험이 있다면 착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단 통증, 충혈, 시력 저하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는 즉시 안과에 내원해야 한다.

안과 질환 특성상 완치가 어렵고 치료 기간이 긴 만큼 항체 주사를 맞다가 임의로 중단하거나, 시간이 지나 약화된 상태로 안과에 다시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치료가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으로 적시에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사는 언제나 피하고 싶고, 눈에 직접 주사를 찌러 넣다 보니 두려워하거나 통증을 걱정할 수 있다. 하지만 마취 안약을 점안하여 마취하고, 머리카라 굽기의 매우 가느다란 주사바늘을 이용하여 망막 전문 의료진이 안전하게 시술이 진행되고, 심한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드물며 시술 시간도 짧으니 두려워 말고 적극적인 치료를 받기를 바란다.

기고

대한의 역군 4·19 영웅들



이병열 4·19 민주혁명기념사업회장

적 불만이 누적된 데 있었다. 혁명의 도화선은 1960년 3월 15일 정부통령 선거에서 3인조 투표, 야당 참관인 축출 등 부정 선거를 자행하는 자유당의 작태를 목격한 민주당원과 시민들에 의해 점화됐다.

4월 18일 고려대 학생들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3·15 부정선거 규탄 데모를 하고 귀가하던 중 종로 4가에서 50-60명의 정치 강파로부터 기습을 받고 피흘리며 쓰러졌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국민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4월 19일 10시 30분경 광고생들은 교문을 봉쇄하고 있는 경찰과 선생님을 뿌리치고 나가 광주 4·19혁명의 서막을 열었다. 시내로 나온 학생들은 공교·상교 등 각 고등학교로 달려가 부정선거 무효와 부패한 독재정권 타도 데모에 동참해 줄 것을 간절히 호소했다.

는 구 도청 앞 광장과 금남로에 모여든 학생들이 경찰들과 투석전·육탄전을 벌였다. 경찰은 최루탄, 물대포 소방차, 공포탄을 앞세워 밀고 밀리기를 반복했다. 밤 9시 20분경 광주경찰서 앞에 운집한 데모대에 경찰 돌격대가 실탄 사격을 하면서 일곱 명의 사망자와 59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4·19 영웅들의 고귀한 희생은 대한민국 민주화의 초석이 됐고 4·19 민주 이념은 국가의 근간을 이루게 되었다.

4·19 영웅들은 6·25 전쟁 이후에도 어려운 시대를 살아 왔다. 1966년부터 월남전쟁에 다수가 참전했다. 박정희 시대는 경제 발전을 위해 독일 광부로 갔고, 중동 건설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국가 경제 부흥을 위해 노력했다.

이제 80대가 된 4·19 영웅들은 아무런 보상도 혜택도 받지 못한 채 4·19 정신과 민주 이념을 후배들에게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늘 애국애족을 생각하고 나라의 무궁한 발전을 염원하며 환혼 길을 걷고 있다.

社說

필수 인력 부족에 커지는 의료 공백 방치할 건가

전국 최악의 의료 취약지로 꼽히는 전남 지역 공공 의료 서비스의 질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고질적인 공중보건(이하 공보) 및 공공 간호 인력 부족이 심화되면서 진료 공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전남 지역에서 올해 복무가 만료되거나 타 지역으로 근무지를 옮기는 공보의는 모두 275명이다. 하지만 새로 편입된 공보의는 250명(의과 110명, 치과 52명, 한의과 88명)이고 다른 지역에서 전입하는 인원을 포함해도 252명에 그쳐 23명이 부족하다.

전남도는 진료 공백을 매우기 위해 응급 의료기관의 전문의나 공보의는 그대로 유관연 관저 중 행정 업무를 보는 것으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수시로 드나들어야 하는 공공기관이다.

장애인 접근 어려운 행정센터 개선 서둘러야

광주·전남 지역 자치단체들이 운영하는 행정복지센터 대다수가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는 불편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복지센터는 예전의 동사무소로, 단순히 행정 업무만 보는 곳이 아니라 주민 복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곳이다.

하지만 장애인차별금지연대 등 관련 단체가 휠체어를 타고 광주 20곳, 전남 10곳의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해 본 결과는 충격적이다. 30곳 중 29곳의 센터가 건물 2층 이상에 있는데도 승강기가 있는 곳은 네 곳에 불과했다.

이 정도면 휠체어 탄 장애인은 이용하기 어렵다. 장애인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개선해야 한다.



지 말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접근성도 문제지만 화장실 등 부대시설도 형편없었다. 30곳 중 일곱 곳에는 장애인 화장실이 따로 없었고 화장실이 있는 23곳 중에서도 사용 가능한 곳은 세 곳에 그쳤다.

요즘에는 장애인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개선해야 한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예산을 적극적으로 투입해 장애인들의 이용 편의 증진에 나서야 할 것이다.

공공해법

요즘처럼 누구나 비행기를 타기 시작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였다. 보잉, 더글러스 등 항공사들이 군용기와 함께 여객기를 만들어 내기 시작하고, 공항의 필요성도 높아졌다.

무안국제공항의 경쟁력을 격정해야 하는 지금, 무안은 군 공항 반대에만 전력을 다하고, 광주는 군 공항 이전에만 집중하고 있는 모양새다.

공공해법은 운송기지, 물류기지, 도시 조성 등의 역할을 한다. 이를 제대로 수행하려면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춰야 함은 물론이다.

2007년 11월 서남권 거점공항인 무안 국제공항이 개항하면서 광주의 민간·군 공항이 모두 옮겨가기로 했지만, 여러 차례

공공해법으로 일체강정기에 만들 예정이었다. 광주에서는 1929년 일본 육군이 지금의 서구 상무지구에 임시 활주로를 만든 것이 시초다.

Table with 4 columns: Title (光州日報), Editor (회장·발행인 金汝松), Publisher (논설실장 程厚植), and Editor-in-Chief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Includes address, phone numbers, and subscription information.